

## 기독교세계관과 보건의료학문: 기초와 실천

김지원 (백석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각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문제가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온전한 건강의 상태, 질병의 유래, 환자의 치료, 보건의료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내용을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기본적 틀에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기독교세계관의 창조의 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당시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 이웃,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건강의 상태로 보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기독교세계관의 타락의 틀은 인간의 죄와 이로 인한 창조세계의 왜곡으로 인해 질병이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다.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 이웃, 나와의 관계도 훼손하게 되었고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에 대한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구속의 틀은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임상치료에 있어서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일반은총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영적돌봄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는 과학적 자연주의, 진화론, 포스트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왜곡된 점들을 찾아 하나님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기독교세계관의 기본적 틀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과 학문연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보건의료분야의 왜곡된 상황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미래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해당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기독교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학자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보건의료분야의 대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대학에서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개편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학문연구에 있어서는 보건의료분야 안에 있는 해부학, 생리학, 임상의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등의 학문 연구내용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의 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여 포괄적인 기독교세계관의 틀에서 각 학문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보건의료분야 내에 소속된 학문의 정의를 내려 봄으로서 기독교보건의료분야의 학자들이 하나님나라를 향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왜곡된 학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분야에 포함된 다양한 학문들이 기독교세계관의 틀 안에서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각 학문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기독교세계관, 보건의료, 신앙과 학문

## I. 서론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보건의료분야에서 연구와 임상치료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전문가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기독교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의 하나는 헌신과 결단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발전한 보건의료분야의 뿌리가 바로 이러한 의료선교사의 헌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선교사인 설대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병원에서 예수그리스도는 실종되었으며 의학은 남았으나 성스러운 임무는 사라져 간다고 한탄하고 있다.<sup>1)</sup> 보건의료분야에서 학문은 남고 예수그리스도가 사라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이유는 바로 기독교세계관의 부재 때문이다. 즉 기독교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들조차도 보건의료의 본질을 잊은 채 진보된 과학기술과 최첨단 의료장비들이 건강을 회복시켜줄 것 이라는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으로서 합당한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독교세계관을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보건의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무신론적 진화론과 세속적 인도주의가 보편화되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이다(김민철, 2003; 28). 보건의료인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세상에서 습득된 세계관에 따라 보건의료인들은 의료의 현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인간복제, 안락사 등의 문제와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보건의료 역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신론적 진화론과 포스트모더니즘에 오염된 관점의 논의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오염된 관점의 문제가 특정한 이슈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퍼져있다는 것이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가 지향하는 것이 수익인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상황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염되고 타락한 보건의료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보건의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교육해야 한다.

국내에서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보건의료분야의 연구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윤리, 생명복제, 윤리교육,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독교병원 경영, 북한선교, 영적건강, 노인, 전인치유, 보건의료선교의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학문 연구가 이루어

---

1) 김민철 (2013) 월드뷰. 성경적 세계관으로 의료선교 바라보기 21-22p(재인용). 설대위 선교사의 “의료선교의 도전과 위기”(Challenge and Crisis in missionary Medicine)라는 저서 서문에 이런 글이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나라에 건강을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서구의 과학 기술과 기술자들을 파견하는 일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병원에서 실종되어 버렸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세운 바로 그 병원에서 무수한 압력에 의해 그리스도는 내몰리고 있다. 의학은 남고 성스러운 임무는 사라져 간다.”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부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학문연구의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광범위한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각 학문 분과별 연구와 보건의료분야의 교육, 연구, 봉사사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독교세계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독교학문의 활성화를 위해 기독교보건의료인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연구영역에서 하나님나라를 회복하려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김지원, 2011a: 7-8).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각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의 기초

### 1.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의 필요성

기독교세계관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창조되었고, 타락했고, 구속되었고, 영화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제임스 사이버, 2008).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기초는 바로 보건의료분야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독교보건의료인들은 많지만 낸시 피어시가 그의 책<sup>2)</sup>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기분야의 중심 주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할 '기독교적 지성'을 갖춘 기독교보건의료인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학문 영역에서 '기독교적 지성'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삶은 실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결과 기독교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전혀 영향력 없이 살아가고 있다(김지원, 2011a: 2)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독교보건의료인들이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병원, 학교, 봉사 등의 사역현장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실천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세계관을 명확히 이론화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올바른 실천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책인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의 책인 자연과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세계관이 필요하며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올바른 적용을 통해 보건의료인으로서 현재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관련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각 사역의 현장에서 참된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

2) 낸시 피어시 완전한 진리 흥병룡 옮김. 69-70p 범, 교육 경제, 과학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해 성경에 기초한 일련의 공유된 가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로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개념을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설명하였는데 창조는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의 출생으로 언급하였다(김지원, 2011b: 374). 이어서 타락은 인간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함에서 벗어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 되어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또한 자범죄로 인한 타락과 죄에서 잉태된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화되는 질병으로 상태로 해석하였다(김지원, 2011b: 374). 구속의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질병 속에 있는 환자에게 일반은총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주신 의학 적 처치뿐 아니라 기독교 영성에 근거한 영적돌봄을 적용하는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안녕을 회복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진정한 인간됨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지원, 2011b: 37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려고 한다.

## 2. 보건의료 모델의 변화과정

건강한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과 단체에서 건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지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채택된 정의는 없다(Goodman and Fuller, 2009: 1)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대하여 단순히 병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WHO, 1948). 건강의 정의가 무엇이고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게 된다.

배종설(germ theory)에서는 감염이 없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이고, 생의학적 모델(biomedical model)에서는 갓 나온 신제품과 같이 고장이 없는 완벽한 제품의 상태가 건강일 것이다. 생의학모델이 감염성 질환 등의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하였으며, 최첨단 의료장비를 통해 질병을 조기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하지만, 하나의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그 원인의 제거하는 것을 치료의 방법으로 정하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생의학적 모델은 병원들이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을 찾는 고가의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환자들은 이러한 고가의 장비가 건강을 회복시켜줄 것이라 믿게 되었다. 병원은 이미 변질된 의료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환자들에게 고가의 장비 설치에 따른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검진을 시행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강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의학적 모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생의학적 모델에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이 문제인 것이다.

신체정신사회 모델은 생의학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모델로 건강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본다(이태준, 1993:1-5). 신체정신사회 모델은 생의학적 모델보다 건강과 질병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모델이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면이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의료인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건강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하며 건강과 의료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간이 ‘육체’와 ‘영’의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경적 의료는 이 두 가지 모두 치료해야한다 (이용환·정갑열, 2005: 13). 이러한 면에서 최근에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정신사회 모델에 영성을 더한

biopsychosocial- spiritual model이 보고되고 있다((Sulmasy, 2002).

몇몇 의료모델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모델들이 각각 독립적인 모델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단계적인 발전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생의학적 모델은 원시 의학의 미신적인 요소에서 탈피하여 질병의 합리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현대 의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신체정신사회 모델은 질병을 하나의 원인에서 찾고 결과적으로 비인간화를 초래한 생의학 모델의 한계성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 인간을 바라보게 되었다.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모델의 변화는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한계성을 지닌 모델이다. 이제는 과거의 의학 모델에서 건강과 질병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이론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기독교세계관 모델이다. 기독교세계관 모델은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으로 건강과 질병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전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의학모델	생의학적 모델 (김민철, 2003; 217-222; 이태준, 1993;1-5; Goodman and Fuller, 2009)	신체정신사회모델 (Goodman and Fuller, 2009)	기독교세계관모델
기본전제	인간을 기계와 같이 봄	인간중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간
질병의 원인	병리학적 인과관계에 따라 단일 원인에 의한 질병의 발생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자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주어 질병 발생	인간의 타락
기여	감염질환의 극복과 첨단의학의 발전에 기여	병리적 인과관계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	생의학모델, 신체정신사회 모델에 넘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인적 이해
치료	질병을 일으킨 단일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치료	생의학적 지식에 행동의학적 접근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	하나님, 이웃,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한계점	의학의 비인간화	영적건강에 대한 결여	혼합주의 극복

〈표1〉 보건의료모델의 비교

### 3. 성경이 말하는 건강의 개념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는 기초는 바로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질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성경은 건강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건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특징들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구약성경은 건강의 특징을 살림,

정의, 순종, 힘, 다산, 장수라고 설명하고 신약성경은 생명, 복, 성결, 성숙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Wilkinson, 1988: 27-58).

살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체성, 완전성, 그리고 안녕의 상태를 의미하며 참된 평화와 안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설명하고 있다(Wilkinson, 1988: 31-32). 정의는 기준을 의미하며 인간생활의 모든 관계에 대한 기준을 의미한다.(Wilkinson, 1988: 35). 즉, 하나님, 인간, 나 자신,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종은 구약시대 당시의 도덕적 율법의 순종과 함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나타난 환경위생, 감염 등에 대한 규칙을 지키는 것도 포함됨을 언급하고 있다(Wilkinson, 1988: 35-36). 힘은 육체적 힘을 포함한 존재의 힘을 의미함을 설명하면서 건강하기 때문에 힘이 강한 것이며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 건강의 본질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Wilkinson, 1988: 37-38). 건강의 특성으로 설명한 다산과 장수는 힘과 같이 건강의 반영이지 건강의 본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약에서 설명하는 건강의 개념에 있어 생명으로서의 건강, 복으로서의 건강, 성결로서의 건강, 성숙으로서의 건강을 설명하고 있다.<sup>3)</sup>

구약		신약	
살롬	전인적 건강, 안녕	생명	하나님과 관계
정의	관계성	복	진정한 마음의 웰빙
순종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위생, 감염 예방	성결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
힘	전인적 건강의 반영	성숙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
다산			
장수			

〈표2〉 성경에서 건강의 개념 (출처: Wilkinson, 1988: 2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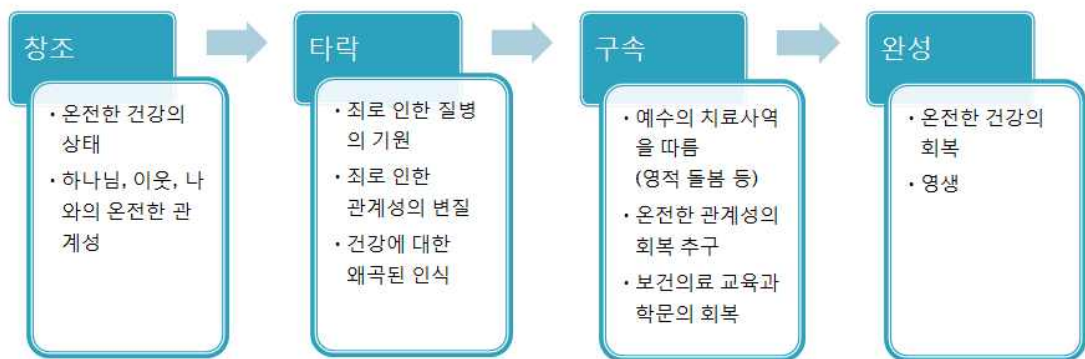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함을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5:3-12에서 설명하는 팔복 중 온유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은 사람과의 관계성과 관련된 사회적 건강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3) 생명으로서의 건강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그분과의 지속적 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고 있다. 복으로서의 건강에 대하여는 팔복은 세상의 가치 및 기준과 완전히 다르며 팔복의 의미는 축복과 건강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결로서의 건강에 대하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몸이 거룩하게 하고 육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성숙으로서의 건강에 대하여는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루는 온전한 성장과 완전한 발전뿐 아니라, 전체성, 즉 성숙한 건강과 안녕까지 포함함을 언급하고 있다. 53-58.

박는 자 등이 복이 있다는 내용은 현재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돈이 많거나 건강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릴지라도 긍휼, 성결, 화평이 충만한 자들에게 있으며, 핍박받는 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 믿음으로 받는 자들, 헛된 요구를 하지 않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시험을 참는 자들, 예수의 말씀과 행위를 깨닫는 자들에게도 행복이 있다는<sup>4)</sup> 설명은 기존의 건강의 범위를 넘어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이웃, 나와 의 관계의 온전성을 말하여 이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며 현세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온전성을 의미한다.

#### 4. 기독교세계관 모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의료의 대상자인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인간관을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김민철, 2003: 262). 건강과 질병에 대한 기독교세계관 모델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림1] 보건의료분야 적용한 기독교세계관 모델

창조 당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상태를 바로 가장 온전한 건강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온전한 건강의 상태를 아담과 이브 외에는 경험해 보지 못해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 라는 말씀을 통해 창조세계의 조화로움과 온전함을 알 수 있다. 창조 당시의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이웃의 되는 피조세계, 나의 영과 육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상태인 것이다[그림1].

창세기는 타락에 대하여 인간이 원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함에서 벗어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 되어 질병이 시작되고, 해산의 고통, 노동의 수고,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죄에서 잉태된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약화되는 상태로 해석하였다(김지원, 2011b). 즉, “질병이란 자신이나 타인 또는 자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초래한 육체적이 영역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전인적으로 포함하는 부조화, 무질서, 불균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sup>5)</sup> 이와 같이

4) 게르하르트 키틀, 게르하르트 프리드리히 편저. 신약성서 신학사건. 요단출판사.460-461. 서울, 2008.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 이웃(자연, 타인), 나와 의 관계가 변질을 뜻하며 이로 인해 질병이 시작되었다[그림1].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의 훼손은 육체적인 건강만을 중요시하는 건강에 대한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였다[그림1].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들은 소명으로 받은 각자의 사역의 현장(연구와 임상치료)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훼손되고 왜곡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시야를 개발해야 한다.

구속의 개념을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질병 속에 있는 환자에게 일반은총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주신 의학적 처치뿐 아니라 기독교 영성에 근거한 영적 돌봄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지원, 2011b: 374). 이러한 개념은 보건의료인의 의학적 처치가 단순한 처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환자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민(compassion)을 가져야 한다(김지원, 2011b: 376-378). 환자의 영적 돌봄을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보건의료인들이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보건의료인의 영성이란 그리스도의 성품과 존재를 쫓아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능력을 말한다(김지원, 2011b: 382). 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함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는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이라면 환자, 동료의료인과의 관계를 뜻하고, 학자의 길을 걷는 보건의료인이라면 동료 학자와 학생들과의 관계를 뜻한다. 즉 환자뿐 아니라 내 이웃이 되는 환자, 동료 의료인 등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회복과 함께 인간은 “질병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이 땅에서 완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sup>6)</sup> 기독교보건의료인 스스로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과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왜곡되고 그릇된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속의 개념은 환자의 치료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 학자에게는 학문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바로 세워야 할 과제”가 있다(강영안, 2013, 32).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의 학자들은 연구와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왜곡된 점들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 Ⅲ.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의 적용

보건의료인들이 학문의 영역이든 교육의 영역이든 실제 임상현장에 있는지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보건의료인 각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림1]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기독교세계관 모델은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기독교세계관은 그것을 참으로 우

5) 김민철, 의료 세계관이 결정한다. 267p. 한국누가회출판부 서울 2003

6) (재인용)김민철, 의료 세계관이 결정한다. 266p. 한국누가회출판부 서울 2003 Franklin E. Payne Jr., Biblical/ Medical Ethics; The Christian and the Practice of Medicine (Milford, Michigan: Mott Media, 1985), p. 81.



리의 세계관으로 삼고 우리가 그에 근거해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는 말처럼 기독교보건의료인들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해 교육하고, 연구하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이승구, 2010: 8).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에 있는 각각의 사역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개념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기독교세계관의 틀을 보건의료분야의 교육, 연구, 임상치료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 1. 교육

기독교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보건의료분야의 교육은 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생물학 관련 과목의 대부분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설명된 교육을 받고 있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많은 보건의료분야의 학자들이 학생들을 교육하지만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받는 학생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보건의료학문이 어떠한 철학적 기반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학생들의 보건의료직종 선택에 있어 높은 소명의식 보다는 취업이 쉽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인의 길을 걸으려는 경우가 많다(박선영, 2012: 72; 박정란·김해선, 2012: 75).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의 학자들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의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깨닫고 환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로서 각 학문분야의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 없이 기독교세계관과 반대일 수도 있는 교육의 일반가정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Craig, 2004, 23-25). 이를 위해 기독교신앙을 가진 보건의료분야의 학자들은 각자의 학문분야가 어떠한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철학적 기반을 이해한 이후 기독교보건의료 분야의 학자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교육과정에 기독교세계관을 반영하고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학과목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로 자신의 학문의 철학적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최첨단 지식의 습득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학계의 흐름에서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주류 학문에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깨달은 기독교 학자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다. 간호학에 있어서 <기독교세계관과 영적건강>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임미림, 2012)와 물리치료학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교과목 개발을 위한 연구(김지원, 2012)가 보고되었는데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과목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일은 보건의료관련 학과가 있는 기독교대학에서 각 학과나 단과대학의 교육과정과 비전을 명백히 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보건의료분야 학자들은 현재와 미래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줄 보건의료인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학자들이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환자 뿐 아니라 미래의 보건의료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각 학문분야에게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기존의 학문의 일반 학자와 기독교 학자 사이에 교육의 내용이나 연구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교육과 연구의 방향성에 차이 있고 이러한 방향성의 차이가 교육의 내용과 연구의 내용을 변화시킬 것이다. 실제 교육과 연구의 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여 접근해 나아갈 것인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분야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연구 내용	분류
해부학 생리학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창조하신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탐구하는 학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대한 연구
병리학	타락 이후 인체 내 질병의 발병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하나님이 창조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이 죄로 인해 왜곡된 현상을 연구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병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	타락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연구
보건환경/ 환경의학	타락 이후 자연적 환경과 인위적, 사회적 환경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고 보건위생에 적합한 생활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임상의학	환자의 회복을 위해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치료접근을 통해 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학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학문 (구속의 학문)
간호학	돌봄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적회복을 돕는 학문	
물리치료학	환자/고객이 최적의 삶과 안녕한 상태를 회복, 발달,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 신체기관의 손상, 기능적 제한, 불능의 상태를 회복, 유지,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	

〈표3〉 보건의료학문의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연구와 분류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학문을 한다고 해서 해부학이나 생리학에서 새로운 학문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해부학과 생리학의 학문의 기저에 깔려있는 세계관을 깨달아야 한다. 흔히 진화론적 입장과 생의학적 이론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해부학과 생리학의 강의와 연구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잠언16:3)의 말씀에 근거하여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는 학문임을 교육의 목표로 정하고 나아가면 될 것이다〈표3〉.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을 포함한 기초의학연구는 창조 당시의 온전함에서 벗어난 상태이지만 인체에 여전히 남아 역할을 하고 있는 생명의 신비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병리학을 연구하는 기독교학자라면 질병의 기원이 인간의 원죄에서 기원했음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병리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인체가 죄로 인해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병을 일으키는 인자가 하나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반에 걸친 뱀손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포

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보건환경과 환경의학은 타락 이후 자연적 환경과 인위적, 사회적 환경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고 보건위생에 적합한 생활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임상의학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증상을 치료하기 보다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치료접근을 통해 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봄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환자의 영적회복을 돕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될 것이다. 물리치료학은 환자/고객이 최적의 삶과 안녕한 상태를 회복, 발달,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 신체기관의 손상, 기능적 제한, 불능의 상태를 회복, 유지,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의 일부 학문을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의 연구내용과 기독교세계관의 틀 안에서의 분류를 해 보았다. “인간은 문화명령을 받은 창지기로 창조”되었으며 기독교세계관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학문을 발전시켜 인류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문화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김민철, 2003: 263). 따라서 아직은 시작의 단계 이지만 보다 많은 기독교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들이 자신이 소명으로 받은 보건의료의 각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왜곡된 학문을 회복하고 타락으로 왜곡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인 기독교세계관 모델을 제시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교육, 연구, 임상치료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전문가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할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학문과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답답함과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땅에 기독교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들이 많지만 자신의 학문분야의 중심 주제에 대하여 성경적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할 ‘기독교지성’을 갖춘 기독교보건의료인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에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동안 보건의료분야는 진화론, 포스트모더니즘, 생의학적 이론 등으로 오염된 관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오염된 세계관을 극복하기위해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여 회복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모델의 변화과정을 보면 질병의 기원에 대하여 단일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고 본 생의학적 모델이 감염질환의 극복과 첨단의학의 발달에 기여하였지만 인간을 기계와 같이 여김으로서 의학의 비인간화를 초래하였다. 그 후 신체정신사회 모델을 통해 생물학적인 요인과 함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보건의료 모델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는 단계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 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기독교세계관 모델을 가지고 건강과 질병을 바라보아야 한다.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기독교세계관 모델은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틀을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한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한 당시의 온전한 건강의 상태로 이는 육체적 건강을 넘어 하나님, 이웃, 나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타락은 인간의 죄와 이로 인해 창조세계의 왜곡으로 인해 질병이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다.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 이웃, 나와 관계도 훼손하게 되었고 육체적인 건강만을 중요시하는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였다. 구속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듯이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일반은총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영적 돌봄을 제공함과 함께 학생들의 보건의료분야의 교육과 학문에 있어 왜곡된 점들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을 보건의료분야에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 미래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교육적 측면에서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기독교대학에서는 교육과정과 비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학문연구에 있어서는 각 학문의 연구내용이 창조, 타락, 구속의 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여 포괄적인 기독교세계관의 틀에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보건의료분야 내에 소속된 학문의 정의를 내려 봄으로서 보건의료분야의 왜곡된 학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보다 많은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독교학문이 꽃피어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영안 (2013). “두 공동체 소속 문제로 본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 『신앙과 학문』. 18(3). 7-36.
- 김민철 (2003). 『의료, 세계관이 결정한다』. 서울: 한국누가회출판부.
- 김지원 (2011a). “기독교보건의료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모색.” 『전인건강과학회지』. 1(1). 1-12.
- (2011b). “기독교보건의료인의 영성.” 『진리논단』. 19. 367-385.
- (2012). “기독교세계관 근거한 물리치료윤리 교과목 개발.” 제3회 기독교보건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67-80.
- 강진홍, 차건수 (2001). “성경에 나타난 건강의 의미와 건강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0(2). 99-109.
- 박선영 (2012).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소명의식에 대한 연구.” 『전인건강과학회지』. 2(1). 63-72.
- 박정란·김해선 (2012).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소명의식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전문직업성 정도 연구.” 『전인건강과학회지』. 2(1). 73-79.
- 이용환·정갑열 (2005). 『聖經 속의 健康散策』.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 이승구 (2010).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출판부
- 이태준 (1993). “생의학(Biomedicine)의 의사학적 고찰과 이 의학모델의 한계성 및 문제점.” 『의사학』. 2(1). 1-9.
- 임미림 (2012). “〈기독교세계관과 영적건강〉 교과목 개설을 위한 연구.” 제3회 기독교보건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55-64.
-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Craig, W. L. (2004). *On being a Christian academic*. Addison, TX: Lewis & Stanley.
- Goodman, C. C. and K. S. Fuller(2009). *Pathology: Implication for the Physical Therapist*. (3rd ed.). Saunders Elsevier, Missouri: St. Lois.
- Sulmasy, D. P. (2002). “A Biochosocial-Spiritual Model for the Care of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he Gerontologist* 42. 24-33.
- Tomas, G. (2011). *Every body matters: Strengthening your body to strengthen your soul*. 윤종석 역 (2013). 『내 몸 사용 안내서』. 서울: CUP.
- Wilkinson, J. (1988). *The Bible and Healing: A Medical and Theological Commentary*. 김태수 역 (2001). 『성경과 치유』.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 <http://www.who.int/about/definition/en/print.html>.(2013.10.2)